

신체 감각과 뇌의 관계 인지과학 통해 밝힌다



감각의 미래

카라 플라토니 지음
박지선 옮김

인간의 뇌는 모든 감각에 관여하는 신비로운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촉감이 손끝이나 피부 등을 통해 체감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외부로부터 자극받은 전기신호로 변환돼 뇌로 전달된다.

뇌는 그 전기신호를 가공해서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그것이 바로 '인식'이라고 한다. 감각에서 인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아주 짧은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뇌라는 기관에 대해 무관심하다.

하지만 머릿속에 들어 있는 1.4kg의 작은 뇌는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촉각 등 오감을 관장한다. 뇌를 통해 보는 세계는 현실세계와 동일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세계일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신체의 감각과 뇌의 관계를 인지과학을 통해 조명한 책이 나왔다.

과학전문기자로 잘 알려진 카라 플라토니가 펴낸 '감각의 미래'는 인간이 느끼는 감각에 대한 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낸다.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에 필적할 수 작"이라 평했고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학과 정재승 교수는 "과학의 즐거움과 기술의 경이로움 사이에서 인지과학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는 굉장한 책"이라며 추천했다.

책은 모두 3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오감'에서는 미각, 후각, 시각 등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새로운 맛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발견된다면 맛의 인식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부 '초감각적 인식'은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아닌 뇌 안에서 인식되는 다양한 초감각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감정의 다양성은 우리가 세상을 읽어내는 방식을 통제하며 이것의 중심에 뇌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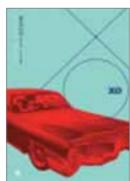
3부 '인식 해킹'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해 신체가 감각하는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준다.

저자는 "뇌는 불가사의한 '블랙박스'가 아니다. 물론 신체와 면역계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는 매우 복잡한 기관"이라면서도 "지난 20년간 몇가지 주목할 만한 과학기술이 새로 개발되면서 인식과 관련된 생화학, 신경과학, 유전학 분야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흐름출판·1만9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스토킹 소재 ... 스릴러 제왕이 펴낸 세번째 작품



XO

제프리 디버 지음
이나경 옮김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뮤지션 '케일리 타운'은 대형 콘서트를 준비하던 어느 날, 공연 스태프가 조명에 깔려 죽는 충격적인 사건과 맞닥뜨린다.

이를 시작으로 신곡 '유어 새도' 가사에서 영감을 받은 듯 케일리의 주변인을 타깃으로 하는 살인이 뒤를 잇고, 케일리를 스토킹하던 '에드윈 사프'가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다.

스릴러의 제왕이라고 일컫는 제프리 디버가 펴낸 'XO'는 스토킹을 소재로 탄탄

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병적 집착으로 몽친 스토커 에드윈 사프는 덴스가 만난 용의자 중 최강의 적수다.

작품마다 새로운 제재를 파고드는 작가는 그동안 '컬트 범죄'와 '사이버 월드'를 통해 정교한 플롯과 세밀한 묘사로 세계 독자들을 매료시켰다. 이번 작품 'XO'에도 치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적 식견, 겹겹의 플롯, 예상을 뒤집는 반전이 녹아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끝없는 반전, 끝없는 놀라움"이라고 평했으며 미국의 투슨시티즌닷컴은 "스릴러의 정상에 선 작가는 누구인가. 제프리 디버는 그것이 바로 자신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상찬했다.

〈비채·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익살과 조롱의 시위, 세상을 바꾸다

거리 민주주의

스티브 크로셔 지음
문혜림 옮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권력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권력의 응징에 대한 두려움은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을 타락시킨다.' (아웅산 수지)

지난해 11월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햇불을 들고 80년 5·18 당시 민주화성회를 재현했다. 현장에는 '박근혜 체포하라'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걸개그림도 걸렸다.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의 산물이었다. 다른 무엇보다 '창의성'이 발현되었다는 것이 이를 바라본 이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각각각색의 퍼포먼스와 자유발언, 이색적인 문구가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적폐청산 세력으로서 지목된 이들이 수갑을 찬 채 하옥된 장면은 눈에 띄는 퍼포먼스였다.

국제제네스티 사무국장인 스티브 크로셔가 펴낸 '거리 민주주의'는 세계 각국의 시위현장을 조망한다. "시위와 조롱의 힘"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창의성이 빛어낸 이색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다. 스티브 크로셔는 1986년 독립언론 '인디펜던트' 창간에 참여해 동유럽혁명과 소비에트 붕괴, 발칸 전쟁 등에 관해 보도한 언론인이기도 하다.

책은 중국에서부터 미국, 유럽, 중동에 이르기까지 세계 전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시위 현장을 소개한다. 특히 시위현장의 모습을 담은 79개 사진은 '변화를 위한 창의적인 행동'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민주주의를 향한 세계 각국의 시위 현장은 때론 창의적이고 유쾌하다. 홍콩 행정장관 선거의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며 열렸던 '우산혁명' 시위 모습.

여준다. 언론인으로 활동한 저자의 경험은 시위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면서도 경직되지 않도록 녹여낸다. "우리는 종종 시위가 타당하지만, 창의력이 부족한 채 실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 오직 예술과 창의적 행동만이 독재정권의 억압적 권력을 해소할 수 있다. 예술과 창의적 행위는 효율적이고, 인간적이며, 지적이다."

추천자를 쓴 예술가 아이 웨이웨이는 저항과 시민불복종은 대중의 문제를 인식할 힘이 있는 개인들에게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효과적인 시위의

표현은 오로지 창의적 표현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2011년 6월 벨라루스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이날 수십 명의 시민들이 연행되었다. 명목은 '거짓 총성'이었고, 당국은 조롱의 의미로 인식했다.

독재자들은 박수갈채를 열망한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질 때' 독재자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사담 후세인 때의 이라크나 현재의 북한에선 열광적인 박수를 치지 않으면 증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14년 홍콩에서는 '우산혁명' 시위가 있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행정장관을 직접 뽑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시위대들이 일제히 우산을 펼 것은 최루 가스나 페퍼 스프레이를 막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5월 마케도니아(옛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에서는 '색깔혁명'이 벌어졌다. 정부가 새 박물관과 동상 건립에 무려 5억 유로를 들인 데 대한 공분이었다. 당시 마케도니아 월 평균 임금은 350 유로에 불과했다. 시민들은 색깔이 든 풍선을 던지며 만연된 부패와 수사 대상자 사면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언론인이자 여성운동가인 이란의 매시 알리네자드는 2014년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펼쳤다. '나의 은밀한 자유'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하집을 벗은 사진을 게재했다. 그녀는 "나의 어머니는 하집을 쓰고 싶어 하신다. 하지만 나는 하집을 쓰고 싶지 않다. 이란 정부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지니·1만9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6일간 6200km 日 책방 여행기



오토바이로 일본책방

조경국 지음

경남 진주에서 현재방 '소소책방'을 운영하는 조경국씨는 2년 전 신문에 소개된 일본의 서점가사를 접하고 여행기에 올랐다. 홋카이도 이와타 서점의 '일만엔선서'(-萬円選書)였다. 고객의 독서취향을 인터넷한 뒤 1만엔 어치의 책을 골라 우편으로 보내주는 이벤트로 동

네책방을 살렸다는 이야기다.

그가 일본으로 책방여행을 택한 이유는 책방지기로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진주에 책방을 꾸린 지 2년이 지나면서 책을 팔아 돈을 벌기가 녹록치 않았다.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책은 부산을 출발해 시모노세키를 거쳐 홋카이도의 이와타 서점을 돌아 다시 시모노세키로 돌아오기까지 26일간 6200km의 오토바이 여행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다. 또한 후쿠오카에서 유명 현재방 판매 행사인 '북쿠오카'(북+후쿠오카) 행사에 직접 참여해 현재방 판매한 경험담도 수록돼 있다. 〈유유·1만6000원〉

전은희기자 ej6621@kwangju.co.kr

세계적 독성학자가 들려주는 약의 모든 것



위대하고 위험한 약 이야기

정진호 지음

진시황은 영원한 젊음을 꿈꿨다. 불로장생 약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그는 불로초를 구하러 간 서복이 돌아오지 않자 대신 수은이 들어간 탕약을 먹었다. 독성이 강한 중금속 수은 때문에 피부가 팽팽해지자 그는 이 탕약이 불로장생 약이라 믿었고, 결국 수은 중독으로 49세

에 사망했다. 우리가 약이라고 믿어온 것은 정말 약일까?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살고 싶어한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큰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여긴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인류의 욕망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졌다. 평균수명이 80세에 이르는 지금,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까? 죽음과 질병에 맞서 싸우는 인류의 열망이 '약'으로 피어난 이야기를 세계적 독성학자 정진호 교수의 시각으로 풀어냈다. 〈푸른숲·1만6000원〉

전은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호텔 수영장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탠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광주일보 제휴 패키지로 예약하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한식당